세계 에너지상, 니카라과의 “태양의 여인들(Solar Women)”에게 돌아가

-- 오스트리아, 특별한 조류(algae) 재배 방식으로 해당 부문 수상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2014 년 2 월 5 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해 세계 에너지상은 니카라과로 돌아갔다. Martha Veronica Rocha 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속한 FUPROSOMUNIC 를 대표해 기쁨에 겨운 감사인사를 하며 무게 13kg 의 청동상을 수상했다. 잘츠부르크의 Wilfried Haslauer 주지사와 Heinz Schaden 시장, 로마 카톨릭 교회 Peter Turkson 추기경, 그리고 세계 에너지상 창시자 Wolfgang Neumann 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오스크리아는 ‘불’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Wolfgang Neumann 은 “이러한 프로젝트는 강력한 신호를 발산한다. 즉,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995-energy-globe-world-award-solar-women

‘공기’ 부문 수상작인 니카라과 프로젝트는 국제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조합한 것으로, 니카라과 여성을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 재단(FUPROSOMUNIC) 지지자들이 과일과 야채 조리 및 건조용 태양광 오븐을 만들어 시판하는 것을 말한다. 총 700 명의 ‘태양의 여인들(Solar Women)’이 다른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무역 쇼에서 전달하며 건강 문제와 삼림 파괴를 방지하고, 청정 에너지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교육과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ecoduna Produktions AG 라는 회사가 특별한 조류(algae) 재배방식으로 ‘불’ 부문에서 수상했다. 광전지 반응로에서 조류를 키워 매우 귀중한 오일과 생물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세스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정이다.

미국의 Ecovative Design LLC 라는 회사가 ‘지구’ 부문을 수상했다.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곰팡이가 100% 퇴비화가 가능한, 심지어 식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생산한다. 이 결과물을 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식물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은 ‘물’ 부문 상을 수상했다. 영국 디자이너 Francesca Mancini 가 욕실과 부엌에서 사용한 생활 폐수를 직접적으로 활용해 화장실 변기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가정용 구조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사이프러스 NGO 인 ‘Cans for Kids’가 ‘청소년’ 부문을 수상했다. 이 활동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알루미늄 캔을 수거 및 압착한 다음 판매한다. 수익금은 아동 병원에 기부되며, 현재까지 26 만 유로를 모금했다.

이번 행사는 잘츠부르크 지방 정부와 잘츠부르크시,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방송공사(ORF) 및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세계 에너지상에는 전 세계적으로 160 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연간 1 천 명 이상의 신청자가 쇄도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energyglobe.info 를 참조한다. 3 월 말이 지나면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 문의:
Cornelia Kirchweger
Mühlbach 7
4801 Traunkirchen, Austria
전화: +43-7617-2090-30
팩스: +43-7617-2090-90
모바일: +43-664-390-60-90
이메일: cornelia.kirchweger@energyglobe.com